

황교안, 패트 처리 앞두고 '단식' 승부수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 움직임에 위기감 민주, 다음주 4+1 테이블 공식화 검토...정국 경색 조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한 뒤 국회로 자리를 옮겨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번 단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한일군

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수용 및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 세력은 먼저 탈퇴가 떨어져 겁박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실상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돌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퀘번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결사반대'만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여야 4당 공조'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이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당 공조"를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실상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도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그 내용 면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협상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간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한국당을 뺀 4당 간 공조로 처리하느냐는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가는 만큼 12월 초 '중순이 결단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다시 부상하는 '의원정수 확대'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 최고위서 발언...군소3당과 공감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선거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언급, 사장되는 듯했던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회의에서 "국회의원 특혜를 줄이는 것이 전제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최고위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55석, 비례대표 75석'을 고집하지 않겠다. 비례성·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라면 보다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이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심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

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평화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상황이란 점에 공감하고 있다. 농촌 지역구가 과도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案)을 반대하는 대안신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최근 "불가피하게 국민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의원정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를 30% 감축을 해서 총 의회 비용을 동결시키는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는 데다,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이 확고해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非文 아니다"

양정철과 민주研 유튜브 출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동반 출연했다.

민주연구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원장과 이 지사가 이미 녹화를 마쳤고, 이들이 출연한 방송분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의사소통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방송에서 당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이 일부 공개한 방송 내용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일부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과 논쟁이 오히려 당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적 현안 등에 대해 신속히 답할 때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왜 나를 '비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양 원장과 출마 여부를 상의했던 사연 등 뒷이야기도 소개했다고 연구원이 전했다.

앞서 양 원장과 이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수원 모처에서 회동, '원 팀'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 지사의 출연 이후에도 권역별 주요 정치인들을 초청한 인터뷰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의 출연이 확정됐으며,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춘 의원도 출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3당 원내대표 '방미 외교' 시작

의회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24일 귀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

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 한국 국회 및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파행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방미 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스리 임시

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킨 외교통상부 차관(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 기간 불법 협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나주시 출판기념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일 나주시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미리의 등방을 파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방승인 김병찬과 김미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서삼석, 송영길,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인규 나주시장, 구충근 화순군수,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 최인기 전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5000여명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송하진 전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축하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인사말을 통해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위해 끝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힌 김회장은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재임한 4년여 동안 즐기게 되었고 다녔던 '등방론'으로 농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등방(웅덩이)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미꾸라지·붕어·메기 같은 온갖 물고기가 모인다'며 '멀리 내다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웅덩이를 가득 채울 만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직대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원장에 대한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협의' 안건을 처리했다. 양 전 원장을 지역위원장이 아닌 '지

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지역위원장 선임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길고 까다로운데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2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샵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